

**KT**

# 유비쿼터스 포털 구축 지향 'KTH'

디지털 콘텐츠 비즈니스와의 시너지 강화 ... 올해 영상정보 분야 주력



인터넷 포털 파란(www.paran.com)을 중심으로 인터넷 플랫폼과 디지털 콘텐츠 비즈니스의 융합으로 시너지를 창출하며 성장하고 있는 KTH는, 2006년 파란을 유비쿼터스 기반 통합 포털로 구축하고, 멀티플랫폼을 지원하는 콘텐츠의 가공·유통 사업 등을 전개하는 한편, KT 그룹 내 다양한 플랫폼의 통합 운영과 관련 솔루션 공급을 담당하는 MCP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4년 7월 출범 이후 IGB메일을 선보이며 빠른 성장을 해 온 파란은, 현재까지 형성한 메일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시장을 좀더 강화하여 '모바일'이라는 국한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유무선 통합 포털 형태에서 한 단계 진화한 유비쿼터스 커뮤니케이션 포털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포털이란 고객이 모든 정보기기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멀티 액세스 포털을 의미한다. 또한 공급자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콘텐츠가 아닌 사용자가 직접 만들고 참여, 생성할 수 있는 참여형 서비스들을 기획, 개발하여 좀 더 확장된 포털 형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파란은 이와 같은 'U-portal'로서의 도약을 위해, KT 등 주요 통신 사업자들과 함께 선도적인 와이브로 서비스 전략을 하나씩 구현해 나감으로써, 단순한 포털이 아닌 무선 및 방송 플랫폼으로의 확장·통합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KT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와이브로 서비스 그 첫걸음으로, 현재 기획 단계를 거쳐 서비스 구축을 위한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다. 올 상반기에는 그 모습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게임·영상·음악·교육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콘텐츠 확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채널로의 유통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 영상분야 적극 투자

올해 KTH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분야는 영상 사업 분야. KTH는 올 초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영상 콘텐츠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자체 판권을 보유한 영상 콘텐츠 확보를 위해 콘텐츠 제작팀을 신설하여 영상 콘텐츠 제작·유통 사업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 온라인 VOD관련 사업에서부터 와이브로·DMB·IPTV·PMP 등의 뉴미디어 콘텐츠 관련 사업까지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며, 극장용 영화 '내 여자의 남자친구' 제작에도 참여하면서 그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상용화된 KT의 와이브로 서비스 상에는 와이브로에서만 서비스되는 전용 영상 콘텐츠를

KTH(대표 송영한)는 PC통신 시대를 개척한 하이텔을 시작으로 현재의 포털 파란닷컴에 이르기까지 국내 인터넷 비즈니스를 선도해 온 기업이다. 지난 1991년 설립된 KTH는 KT그룹 통합 포털 사업 주체로 선정돼 한미르 사업을 양수받아, 변화하는 인터넷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4년 통합 포털 파란닷컴을 출범시켰다.

글 | 임일곤 기자(igon@itn.co.kr, 아이티타임스)

기획,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 작년 '프리스타일'이라는 e-스포츠 게임을 성공적으로 퍼블리싱하면서 게임산업에 안착하였고, 이후 '큐링' '쌍온라인' '풍류공작소' '피싱온' 등의 퍼블리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CJ인터넷과 함께 채널링 서비스도 추진 중이며, 게임 캐릭터를 통한 다양한 부가 사업 창출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KTH는 KT 그룹의 대표적 MCP로서, KT그룹의 콘텐츠 전략 사업 중 하나인 e-러닝 사업의 콘텐츠 소싱 및 사이트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작년 말 미니홈피를 활용한 커뮤니티 기반 신개념 교육사이트 '큐박스'를 오픈하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점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직장인 대상의 e-러닝 교육 서비스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 어학 교육 서비스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이렇듯 KTH는 영상·음악·게임 등의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하게 제공하자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게임 퍼블리싱 사업과 수익성 높은 시장으로 재검증되고 있는 e-러닝 및 영상 사업 등의 콘텐츠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KTH는 장기적으로 유선뿐만 아니라 모바일, 와이브로 및 IP-TV 등의 다양한 플랫폼을 아우르는 유비쿼터스 통합 포털을 구축하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공급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직접 제작 혹은 투자를 통해 양자간 시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

## “기업 문화·체질 개선 지속할 터”



“파란 오픈 6개월 만에 업계 5위권 진입과 프리스타일 퍼블리싱으로 처음 진출한 게임사업 성공 등으로 작년 한해 동안 KTH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송영한 대표는 침체기에 있던 KTH에 활력을 불어넣은 장본인으로, IT 인프라와 기술력 등의 장점을 지닌 KTH에겐 지금까지 성장이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기업문화·체질 개선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고도의 경영시스템 구축, 수익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포트폴리오 재편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작년부터 조직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내부 역량 강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해외교육까지 포함하는 사원 교육 훈련 강화, IT 인프라 확

충, 프로세스 개선 등으로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기업의 가치창출 능력을 향상시킬 의지도 갖고 있다.

KISinfo

# 리딩 크레딧 뱅크로 우뚝

## 작년 1043억원 매출 달성 ... 인터넷 및 기업정보 등 사업군 다양



박상태 한국신용평가정보 대표

▶2006년, 21살 성인이 된 한국신용평가정보는 한국의 'The Leading Credit Bank'로 자리매김했으며, 지난 20년간의 저력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20년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정보는 1985년 국내최초 신용평가 기관인 '한국신용평가'로 출범한 이래 신용평가 과정에서 축적된 기업정보와 신용분석 노하우를 바탕으로 1988년부터 국내 최초 기업/금융정보 서비스인 'KIS-LINE'을 시작 정보사업을 본격 수행했다. 평가사업과 정보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던 중 1998년 세계적인 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사와 합작하여 평가사업을 자회사인 한국신용평가로 분사시키면서 정보사업분야에 집중하게 됐다.

이어 2000년 코스닥 등록, 2002년 국내 최초로 크레딧뷰로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창사 20주년을 맞이했던 2005년 1043억 매출액을 달성해 국내 대표적인 종합신용정보기관으로 성장했다.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이 같은 성장은 박상태 대표이사가 2003년 4월 취임한 이후 가속화 되었던 평가이다. 2002년도 487억원이었던 매출이

2003년도 75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그 다음 해인 2004년에는 951억을 달성했고 작년 1043억이란 창사이래 최대실적을 거둔 것이 실례이다.

박상태 대표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작년 매출액 1043억원과 영업이익 84억원의 성과를 이루었다"며 "금년에는 매출 1155억원과 영업이익 82억원 목표치를 달성할 것"이라 말했다.

### 주요사업 소개

한국신용평가는 현재 기업정보사업, 채권추심사업, 자산관리사업 및 인터넷사업, CB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 · 기업정보사업

기업신용평가 사업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1988년 기업정보서비스 'KIS-LINE'를 시작했다. KIS-LINE 사업은 금융권 뿐만 아니라 대기업·연구소·대학·법무법인 등 사회 각 분야에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KIS-LINE사업은 지난 16년간 기업정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시장에서 우위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KIS-LINE 외 KIS-VALUE, R2, e크레딧 등 다양한 상품도 있다.

#### · 채권추심사업

9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사업분야 개척 차원으로 채권추심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한국신용평가

작년에 20주년을 자축한 한국신용평가정보는 기업정보(KIS-LINE) 시장점유율 1위, 개인신용정보/실명확인 인터넷 서비스 1위, 통신채권 추심서비스 1위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업계최초 자산관리서비스·국내 최초 CB사업 진출 등 다양한 사업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글 | 김중을 기자(people@itn.co.kr)

가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1996년부터 시작된 통신채권서비스는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사업 중 중요한 역할을 할 정도로 자리를 확실히 잡았으며, 1998년부터 금융채권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왔다.

2003년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LG투자증권이 공동 설립한, 국내 최초의 다중채무자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인 상록수 SPC의 자산관리자로 선정되어 개인신용회복도 지원하고 있다.

#### · 인터넷사업

인터넷 붐이 한창이던 2000년 5월 'kiscredit.com'을 오픈하여 국내 최초로 신용평점서비스를 개시했다. 2001년 3월 'creditbank.co.kr'로 사이트를 개편하여 국내최초 신용포털사이트로 탈바꿈했다. 2003년 4월에는 '부자되는 신용관리기술'을 출판하여 개인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신용정보시장 선도업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다.

#### · CB사업

2002년 은행·보험·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함께 참여하는 초대형 크레딧뷰로(Credit Bureau)



▶국내 최고 신용포털사이트인 크레딧뱅크(www.creditbank.co.kr)에서는 인터넷 명의도용 및 주민번호도용 예방차원으로 인터넷가입기록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따라서 고객은 인터넷사이트 가입 기록정보를 보고 자기 정보 도용여부를 먼저 판단할 수 있다.

컨소시엄이 국내 최초로 탄생됐다. 한국신용평가는 이를 위해 2000년 12월부터 세계 3대 신용정보업체 중 하나인 트랜스유니온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크레딧뷰로 사업진출을 사전에 준비했다. 최초 11개 금융기관과 컨소시엄으로 크레딧뷰로를 시작한 한국신용평가정보는 2006년 현재 1200여개 회원사와 함께 크레딧뷰로 사업을 펼쳐가고 있다. **K**



#### 한국신용평가정보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년	2004년	증가율
매출액	104,305	95,168	9.6%
당기순이익	14,599	9,197	58.7%